

[첨부 2]

■ 공연 프로그램

서막	아세안 소개		아세안의 인사
1막	환희의 열 가지 그림자	개별	10개국별 전통 및 민속 무용
2막	하나로 모이는 모든 뿌리	그룹	라마야나(7개국)
			대나무와 코코넛 껍질 활용 무용(6개국)
			타리, 롱깅, 조겏(4개국)
			아세안의 번영
3막	통합을 위한 조화	합동	아세안 공연 예술의 정수를 보여줄 공동 창작 공연

■ 비바 아세안 공연 세부소개 자료

서막

아세안 10개 회원국 출신의 예술가들이 모두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등장하여 관객들을 공연으로 안내한다. 서막은 공통의 문화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새롭게 편곡된 환영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관객들을 기쁨과 평화, 즐거움을 추구하는 아세안 사람들의 생활 터전인 육지와 반도, 섬으로 서서히 데려간다.

제1막 - 환희의 10가지 그림자

각 회원국들이 다음과 같이 알파벳 순서대로 입장하여 원곡에 맞춰 각각의 독특하고 전통적인 예술 무대를 짧게 선보인다.

브루나이: 알라이 아시크

산들바람, 잎들의 움직임, 새들의 노래를 느끼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환경을 표현한 춤이다.

캄보디아: 토클 토클프

서사시 라마야나의 전투 장면에서 원숭이 전사 하누만과 마왕 라바나가 서로 주고받는 춤으로 둘은 각각 상대를 압도하는 자신만의 힘을 보여준다.

인도네시아: 세카르 프레기나

정령과 활기를 불러내기 위해 새롭게 창작된 발리의 춤으로, 꽃(세카르)의 움직임에 담긴 예술가(프레기나)의 동작으로 표현된다.

라오스: 두앙 줌 파 춤

라오스의 상징이자 라오스 사람들 자신이기도 한 참파 꽃은 아름다움과 상쾌한 향기를 의미하며 참파는 그 꽃이 보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라오스 사람들에게 집을 뜻한다.

말레이시아: 응가자트 이반

사라왁의 이반 부족 고유의 토속 춤인 응가자트 춤은 원래 전사들이 싸움터에서 돌아왔을 때 뿔뿔히 뿜어낸 춤으로 지금은 추수 축제 가와이를 축하하고, 전통가옥을 방문한 중요한 손님들을 환영할 때 춘다. 무용수들의 정교한 장식물과 의상에 더해 소수민족 타악기들이 이 오래된 공연예술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특색을 만들어낸다.

미얀마: 타르 야르 흘라 파 민타르 아카

미얀마 안무의 특징을 연습하는 이 춤은 미얀마 전통음악의 리드미컬한 곡조에 맞춰 동시에 머리, 허리, 손,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준다. 미얀마의 모든 예술가들은 높은 기량으로 나아가기 전 반드시 이런 동작에 숙달되어야 한다.

필리핀: 파운잘라이

민다나오 남부 바실란의 야칸족이 결혼에 앞서 추는 춤으로 춤을 추는 한 쌍은 일반적으로 정교한 의상을 입으며, 대개는 흰 색 점을 찍는 화장을 한다.

싱가포르: 라사 사양

중국, 말레이, 인도의 전통 춤 동작이 포함된 이 춤은 다민족국가 싱가포르의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기리는 춤이다. 이 활기찬 공연은 싱가포르 사람들의 다양한 문화와 단합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한다.

태국: 키나리

반은 처녀, 반은 새인 키나리의 비행 춤은 일반적으로 궁중에서 추는 춤이다. 키나리는 불교 신앙과 연관된 회화, 조각, 건축 등 태국의 여러 예술 장르에 등장하지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수돈 자타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간 왕자와 키나리의 사랑 이야기이다.

베트남: 호아 방

이 춤은 자유를 추구하고, 본래 자신의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지내며, 사회봉사에 헌신하려는 인간의 갈망을 묘사한다.

제2막 - 모든 뿌리는 하나로 이어진다

제2막에서는 아세안을 풍요로운 문명의 요람으로 만든 문화예술 발전의 기원을 그려내는 합동공연 3부작이 무대에 올려진다. 이 합동공연을 위해 최근 아세안 문화 워크숍이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각 공연에 담긴 아세안 공통의 철학을 종합적으로 묘사하는 최적의 예술 형태를 함께 재창조해냈다.

라마야나

이 고대 인도의 서사작품에서는 7명의 예술가가 공연한다. 이들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등 라마야나 서사가 문화예술의 토대가 된 7개국 출신 예술가들이다.

대나무와 코코넛 껍질 춤

필리핀과 베트남의 합동공연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의 합동공연 등 총 두 편의 공연이 각 지역의 천연자원을 활용하면서 각각의 민속 곡조가 지닌 토속적인 박자에 맞춘 민속 예술을 보여준다.

타리, 룡쟁, 조켓

이 세 가지 의식 무용은 각각의 독창적인 곡조와 함께 말레이 반도와 아세

안 해양국가들의 무슬림 신앙에 기초한 전통적인 춤동작을 잘 보여준다.

제3막 - 통합을 위한 화합

‘비바 아세안’의 피날레에서는 모든 예술가들이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등장합니다. 각 회원국의 10가지 곡조로 새롭게 작곡된 곡이 아세안 모두의 단합과 화합의 완벽한 예를 보여준다.